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世界最初 건강양말 發明人

一元産業技術研究所 元 仁 浩 소장



〈元 仁 浩 소장〉

30년을 發明이란 외길을 걸어온 執念의 發明人 元仁浩 一元産業技術研究所長. 300여점에 이르는 각종 發明을 하여 「韓國版 에디슨」으로 통하는 元소장은 國內 못지않게 國外에서도 그 명성이 대단하다.

기라성 같은 先進國 發明人들도 元소장의 發明을 향한 執念 앞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각종 國際展에 한해도 거르지 않고 發明품을 出品하여 30여회나 受賞받은 그는 이제 世界的인 發明人이 되었다.

세계 최초의 發明品으로 손꼽히는 건강양말은 성보상사에 의해 生

産되어 국내는 물론 美國·西獨·日本등 20여개 국가에서 人氣를 독차지하고 있다.

元소장이 건강양말 研究를 시작한 것은 지난 8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國際發明品展示會에서 밀창부문에 突起物이 부착된 신발을 보고 이를 양말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건강양말을 보면 보통양말에 수수알 크기의 突起物을 人體工學 원리를 이용하여 부착해 놓은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發明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發明品이 誕生하기까지는 4년의 세월이 필요할 정도로 까다롭고 복잡한 發明品이다.

양말에 突起物을 부착하기도 생각처럼 쉽지 않은 않았다. 양말은 자주 세탁해야 하므로 우선 세탁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만도 2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또 지압을 통한 건강관리와 동시에 악취를 제거하는 突起物 제조용 특수약품을 찾아내는 데는 세계각국의 의학 및 화학문헌을 수집·조사·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 밖에도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元소장의 研究는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87년 5월 드디어 完製品이 生産되기에 이르렀다.

『30년 發明活動에서 건강양말처럼 애를 태운 것도 드물지요.』

그래서 그 어느 發明品보다도 愛着이 간다는 元소장의 설명.

元소장에 따르면 이 건강양말은 東洋醫學과 人體工學을 기초로 한 尖端技術이 만든 제품으로서 특수한 기술입자가 양말바닥 안팎으로 突出되어 人體 全身의 기능과 연결된 경혈 및 병점등의 部位를 자극하여 體內를 活性化시켜 줌으로써 완전한 건강을 지켜준다고 한다.

실험결과에서도 이 건강양말은 악취제거는 물론 무좀예방·변비치료·두통·불면증·고혈압·피로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元소장은 美國·西獨·日本등 11개 국가에 特許出願을 마치고 世界市場 석권을 준비하고 있다. (88)